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성경본문 <민수기 25장 1절 ~ 13절>

[1]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3]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와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5]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7]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9] 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2]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의 음모는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큰 시험이 생겼고, 그것도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브올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을 경배하는 행위였던 음행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이 저주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그들이 행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전염병이 돌아서 이만 사천 명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눈 앞에서 죄를 짓는 한 쌍의 남녀를 단죄한 후에야 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1. 진짜 적은 자신 안에 있습니다.

[1]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3]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해도 당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죄 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지키셨지만, 정작 그들은 모압의 문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기쁨과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 빨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장 충실하고 견고해야 할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들을 무너트릴 수 있는 적은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키지 못하는 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민감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과 싸우며,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2.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7]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9] 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었던라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2]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을 이성간의 특별한 감정인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느끼는 감정을,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분노하며, 실망하는 질투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신 마음과 그들을 향한 신뢰의 크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로 생각됩니다.

백성들의 수령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죄를 지으러 들어가는 두 남녀를 보고 비느하스의 마음이 불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과 그 때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1. 마음 안에 있는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소서.
2.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